

전망있는 개비자나무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1. 분포

개비자나무는 수고 3m정도로 자라는 상록침엽관목으로 많은 줄기를 내어 우산 모양의 수형을 갖는다. 수평적으로 우리나라는 37° 이남에 자생하고 서쪽으로는 38° (경기도와 충북이남지역)까지 표고 100~1,300m지역에 자라며, 제주도와 울릉도에는 자생하지 않으며 산골짜기의 그늘을 좋아하며 습기가 약간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적응력이 넓으며 토질은 비교적 가리지 않으나, 습기가 있는 비옥한 양토나 사질양토를 좋아한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일본에 분포 한다. 내한성이 강하여 남한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2. 특성

개비자나무는 높이 3m에 달하며 수피는 암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져 있다. 가지는 윤생하며 옆으로 퍼지고, 수에 송진구멍이 있고, 어린가지는 녹색이다. 동아의 아린은 떨어지지 않으며 잎은 선형으로 길이 4cm정도이지만 맹아의 것은 7.5cm에 달하는 것도 있고, 가지의 것은 길이 2~2.5cm이며 4~5년 만에 떨어진다. 중앙의 엽맥이 두드러지며 뒷면에 2줄로 된 기공선이 있다. 엽병이 없고 2열로 배열되며 비자나무에 비하여 부드러우며, 잎 끝이 예리하나 만져도 찌르지 않는다.

꽃은 이가화이지만 간혹 일가화도 있으며, 4월에 녹색으로 피고, 수꽃은 길이 5mm 내외로 편구형이며,

10여개의 포로 싸인 것이 한 화경에 20~30송이씩 달린다. 암꽃은 길이 5mm이며, 2송이씩 한군데에 달리고, 10여개의 뾰족한 녹색 포로 싸여 있다.

배주는 한 꽃에 8~10개씩 있고, 육질의 종의로 싸인 열매는 둥글며, 지름 1.7~1.8cm로서 다음해 8~9월에 붉게 익고, 종자는 장타원형이며 길이 15mm, 폭 10mm로서 갈색이다. 열매는 짧은 자루가 달려있다.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공해에도 강하다. 음수이며 큰나무 밑에서 습윤 적윤지의 토양에 생육이 적당하다.

3. 번식 및 관리

- 종자 번식

종자는 육질의 겉껍질로 싸여있으며 지름 1.7~1.8cm의 타원형으로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적색으로 익는다. 종자는 장타원형으로 갈색이다.

종자채취는 8월~9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하고, 보습 저온저장하거나 노천매장을 한다.

파종은 8월~9월에 종자를 직파하거나 저장한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 삽목

삽목은 6월에 녹지삽을 하거나, 2월에 숙지삽을 하는데 삽수의 하단부를 물에 담갔다가 세워서 꽂는다. 삽목 후에는 해가림을 해주는 것이 좋다.

- 이식

이식은 3~4월이나 10월이 적기이다. 심을 때 밑거름으로 잘 썩은 퇴비나 유기질퇴비 등을 넣고 흙을 덮은 위에 심는다. 심은 후 충분히 관수한다.

- 식재 후 관리

- 풀베기 : 묘목의 잡초는 어릴 때 지속적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 비료주기 : 덜거름으로 깻묵, 복합비료 등을 겨울에 뿌리 주위를 얕게 파고 묻어 준다.

전정은 가지가 밀생하므로 다른 침엽수의 전정 요령에 준한다.

- 잡목솎아주기 : 풀베기가 끝난후 2~3회에 걸쳐 6~8월에 실시한다.

- 가지치기 : 가지치기의 시기는 수목이 휴면상태에 있는 이른 봄과 늦가을(2월 중순~3월 초순, 10

월~11월) 실시한다. 가는 가지가 원가지일 경우 가지터기를 남겨야 하고, 굵은 가지의 경우 가지터기를 남기지 않고 바짝 자른다. 가지가 많이 자란 나무는 '솎아베기'로 수형 조절해야 한다.

4. 조경수로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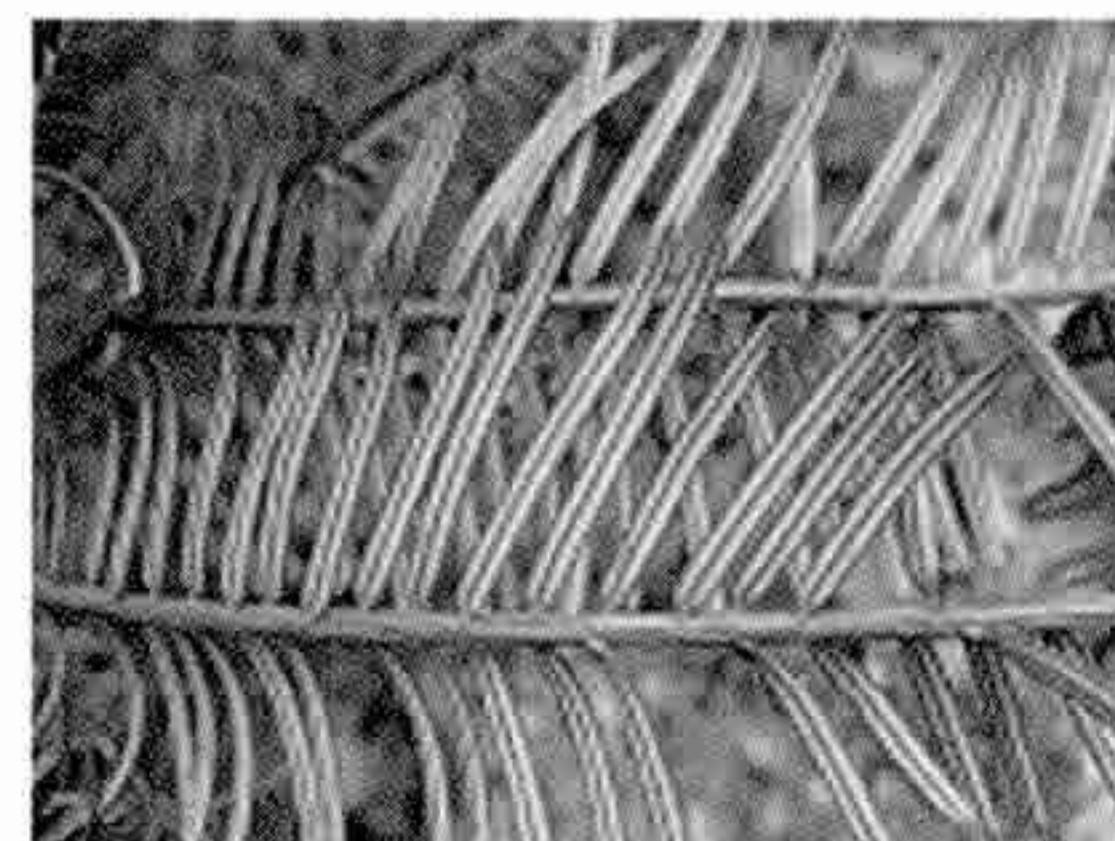
개비자나무는 상록수로 아직 중부지방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무다.

수형이 깨끗하고 엽폭이 넓어서 다른 침엽수에 비해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며 빨간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수로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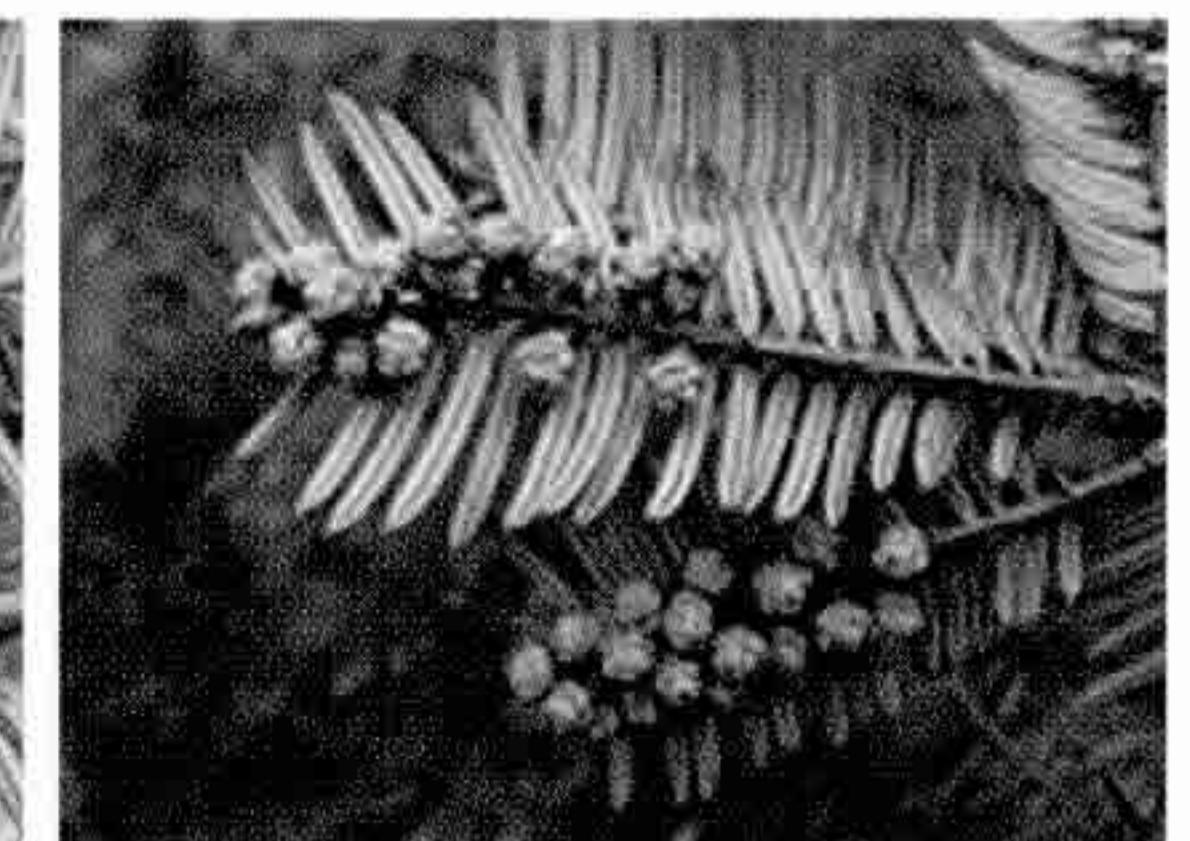
따라서 정원수용, 공원수용으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생장이 빠른 특성 때문에 쉽게 녹화가 가능하다. 내공해성도 비교적 강하다. 현재 자연상태에서의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앞으로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종자는 기름을 채취하여 식용, 등유 용으로 사용하며, 열매는 맥주의 안주로 쓰인다.



잎



뒷면



수꽃



수형



가지 및 수피



수꽃



열매